

## 『울산문학』에 나타난 공업화에 관한 문학적 대응 양상

- 권두언과 시 작품을 중심으로 -

정 용 호\*

### 차 례

- |                                  |                               |
|----------------------------------|-------------------------------|
| 1. 서론                            | 3. 시 작품에서 구현되는 장소 정체성의 양상과 의미 |
| 2. 권두언에 나타난 공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순수지향 | 4. 결론                         |

###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의 기관지인 『울산문학』에 수록된 권두언과 시 작품을 중심으로 울산 지역 공업화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울산 지역의 문학 활동은 특정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작가 집단과 동인 활동을 통해 다채롭게 전개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는 울산 문단의 제도화와 연속성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울산문학』은 지역 문단과 문화 형성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는 한편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울산의 장소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추구하였다. 특히 1980년대까지 향토성

\* 울산대학교 글로벌인문학부 객원교수

과 순수성을 지향하는 노선을 견지하며 시 작품에서는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장소를 형상화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시각을 담아냈다. 『울산문학』에 수록된 시 작품들에서는 공업화로 인해 소멸한 옛 장소를 향한 안타까움이 드러나며, 도심지를 형상화한 시편에서는 도시인의 고단한 현실과 소외감이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묘사는 직접적인 현실 비판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실된 가치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인이 부여한 장소 정체성은 본질적인 삶의 가치와 맞닿은 그리움과 향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울산문학, 울산, 공업화, 도시화, 장소 정체성, 과거, 향수

## 1. 서론

본 연구는 『울산문학』의 권두언과 평론 그리고 시 작품을 통해서 울산의 공업화에 대한 문학적 대응 양상과 장소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권두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잡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울산 문학에 관한 연구는 고전문학 영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sup> 울산의 현대문학에 관한 학술적 논의는 일제 식민지 시기

1) 성범중, 「울산울주지방의 유행민요」, 『울산어문논집』 제9집,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4, 25-75쪽; 박경신, 「별신굿과 공동체문화-울산광역시 동구 일산동 지역 연구를 통해서」, 『구비문학연구』 제20집, 한국구비문학회, 2005, 115-144쪽; 성범중, 「亭子和 園林을 통한 문학적 교유와 소통-울산 소개 集淸亭의 경우를 예로 하여」,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141-167쪽; 엄형섭, 「울산 지역 문집의 현황과 과제사적 위상」, 『동양한문학연구』 제43집, 동양한문학회, 2016, 31-63쪽; 김구한, 「울산 일산동 별신굿의 연행구조와 변화양상」, 『무형유산학』 제3권 제2호, 무형유산학회, 2018, 7-46쪽; 마소연, 「거리굿에 나타나는 웃음의 양상과 의미 연구: 일산동 별신굿의 거리굿을 중심으로」, 『동약어문

와 해방기 울산 출신 작가들에 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sup>2)</sup> 이들 연구는 울산의 지방 문학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개별 작가론에 가까운 것이고 대체로 경남이라는 전체 지역의 한 부분으로서 울산 문학의 현황이 언급되어 왔다.<sup>3)</sup> ‘지방 문학’으로서 ‘울산 문학’의 가능성을 언급한 글에는 울산지역 문단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박종해의 글<sup>4)</sup>이 있으나 학술적 논의이기보다는 평론의 성격이 강하며, 안성길의 논문은 울산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를 다룬 시를 통해 울산의 ‘해양문학’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sup>5)</sup>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이 울산 문학에 관한 연구는 전근대부터 광복기까지의 기간과 1990년대 이후를 다루고 있으나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울산은 공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

학』 제78집, 동악어문학회, 2019, 93-118쪽; 심상교, 「울산 언양 ‘와 아이라 고틀이곳’의 전승현황 연구」, 『아시아강원민속』 제36집,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1, 35-76쪽.

- 2) 울산 출신 작가에 관한 논의는 상당수 존재한다. 그중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호·이순욱, 「근대 어린이문학과 신고송의 동요」, 『음악과 현실』 60, 민족음악학회, 2020, 119-158쪽; 김정호·이순욱, 「정인섭 동요와 악곡 연구」, 『인문논총』 56,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47-69쪽; 김봉희, 「재북 시기 신고송의 수필에 나타난 고향 인식」, 『加羅文化』 32, 경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2023, 3-26쪽; 나보령, 「편집자 오영수-『현대문학』 편집장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8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3, 221-250쪽; 정용호, 「오영수의 동요 작품에 나타나는 현실 인식 양상과 의미-『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수록 동요 작품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34,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4, 151-183쪽.
- 3) 박경수, 「일제 강점기 일간지 계재 부산·경남지역 동시 연구」, 『한국문학논총』 56, 한국문학회, 2010, 157-201쪽; 박경수, 「부산·경남지역 아동문학의 현황과 전개과정 연구-1920~1930년 『동아일보』 계재 작품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31, 우리문학회, 2010, 339-404쪽.
- 4) 박종해, 「[문학도 지방화 시대] 울산문학의 현황과 발전의 가능성」, 『문예운동』 110, 문예운동사, 2011, 148-153쪽.
- 5) 안성길, 「현대문학: 울산의 해양문학」, 『사립언문연구』 19, 사립어문학회, 2009, 175-201쪽.

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울산의 지방 문학이 울산이라는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변화를 어떤 시선으로 포착하였는지는 의미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울산광역시사』에서는 1947년 이용우가 발간한 향토문예지 『태화강』, 1954년 10월 김태근이 설립한 백양문화사에서 창간한 향토 종합문예지 『백양』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1970년 10월에 창간호가 나와 1972년 10월에 2집 발간을 끝으로 폐간된 『처용춘』과 1972년 10월 15일에 10집이 발간되었다는 『잉여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sup>6)</sup> 흩어져 있던 동인 활동을 한곳에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함께 1966년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가 설립되었고 동인 회원 다수가 『울산문학』에도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울산문학』을 울산 문단의 공통된 담론과 정서를 담은 자료로 읽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울산문학』 창간 이후의 상황을 볼 때, 농어촌에서 공업도시로 변모해 가던 울산의 지역 정체성을 고민하고 그에 관한 충분한 대응을 보일 수 있었는가에 관한 의문이 든다.<sup>7)</sup> 이른바 ‘무크’의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지역 문단 상황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임세진에 따르면 “무크는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독재에 대항하면서 누적되고 강해진 민중운동의 역량이 스스로가 발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성장하였고, 이와 함께 줄어든 발표 지면에 대한 대안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강구한 결과물”이었다.<sup>8)</sup> 김경연은 『지평』과 『전망』에서 추구한 ‘지방주의’와

6) 『蔚山廣域市史-사회·문화』,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548-550쪽.

7)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설립은 한국문인협회 마산지부가 설립된 1960년 9월 12일보다 6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한국문인협회 마산지부에서는 1968년에 『文協』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지를 창간하였고, 울산지부의 기관지인 『울산문학』은 1969년에 창간호를 발간하였다. 기관지 발간에 걸린 시간은 울산지부가 더 빨랐던 것인데, 이후 『울산문학』은 1970년에 제2집, 1973년에 제3집을 발간하였다. 제3집 이후 휴간되었다가 1979년 제4집을 속간하고, 1980년부터는 정기적인 간행이 이루어졌다. 문영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는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등단한 문학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작품이 다채롭고 풍성해졌으며 이로써 정기적인 간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蔚山文學史』, 울산광역시 문인협회, 2004, 54쪽).

‘세대주의’는 부산의 제3세대 비평 주체들을 ‘우리’로 결속하는 특수한 의식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 지역 새로운 문학 주체로 등장한 제3세대가 무크지를 창간한 데는 문화의 서울/중앙 독점구조에 대한 불만과 지역과 지역문화에 대한 자의식이 강하게 발동했던 것으로 해석한다.<sup>9)</sup> 『마산문화』에서는 “한국문화의 서울 집중현상”을 극복하고 “문화적 열등감이나 소외감도 타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잡지에 수록된 글이 “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명의 청년들이 쓴 글”이라고 했다.<sup>10)</sup> 무명의 청년이 쓴 글로 잡지를 채우는 일은 기성 문학(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방 문학을 시도하는 목적의식에 부합하는 듯하며 김보경이 무크지의 특징으로 규정한 필진과 장르의 다양화를 통한 ‘확산’과 지역 정체성을 바탕으로 당대 문학 논의를 ‘포괄’하는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sup>11)</sup>

그러나 1980년대 울산에서 이루어졌던 무크지 문학운동이란 기존 논의에서 평가하는 1980년대 무크 운동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 울산지역의 『변방』과 『동해남부시』가 울산의 대표적인 ‘무크지 문학운동’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이들은 기존의 동인 중심 문학 활동과 다르지 않아 본고에서 말하는 무크 운동과는 거리가 존재한다.<sup>12)</sup>

8)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325쪽.

9) 김경연,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89집, 한국문학회, 2021, 487; 494-496쪽.

10) 『마산문화』 1, 도서출판 멧돌, 1982, 5쪽.

11) 김보경, 「1980년대 무크 문학의 편집 내용과 전략-‘확산적 방향의 종합’과 ‘포괄적 방향의 종합」, 『현대문학의 연구』 81,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292-294쪽.

12) 『蔚山文學史』, 84쪽. 이와 같은 판단은 울산의 정체성을 공업 혹은 노동과 관련할 때는 다소 의아한 부분일 수 있으나 노동 문학 혹은 노동자 문학이 본격적인 관심을 받게 된 것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로 보인다.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공단문학』을 제정하여 노동자 문학상을 수여한 것도 1988년에 들어서였다(울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울산민주화운동사』, 선인, 2023, 385쪽).

이러한 점에서는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는 지방 문학의 융성을 위한 노력과 중앙 문단의 지부 성격을 함께 지니기에 지방 문학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했으리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울산의 장소 정체성이 애초에 농어촌에 기울어 있었음에 주목하면, 뒤늦게 국가 산업화의 전략적 선택을 받은 울산에서 문인들이 『울산문학』에서 보여준 작품 활동의 사정을 넉넉히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울산문학』의 문인에게는 울산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을 향한 향수와 공업도시라는 정체성에 간혀 새로운 문화적 토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산문학』에서 설정한 문제의식은 울산의 장소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에드워드 렐프에 따르면 고향과 같은 장소에 관한 일반적인 감정은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정착하고 싶은 욕구가 균형”을 이루는 변증법적인 특징을 지닌다. 상충하는 욕구 가운데 한쪽이 쉽게 충족되면, “노스텔지어나 뿌리뽑힘의 느낌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반대로 억압감이나 한 장소에 간혀 있다는 느낌을 수반하는 우울증으로 고통받는다.”<sup>13)</sup> 울산은 기존의 장소적 특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장소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의 다양한 경험이 중첩된다. 고향을 잃은 이들과 일 자리를 찾아 울산이라는 타지로 이주한 이들의 장소 경험이 뒤섞인다.

이에 『울산문학』이 지향하던 문학적 방향성도 이중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각 시인에 따라 울산의 공업화에 대한 시적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리라 짐작할 수 있다. 에드워드 렐프는 한 장소는 과거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현재적 표현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의 표현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전통 행사는 장소에 일어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소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sup>14)</sup> 『울산문학』이 끊임없이 향수 어린 시선으로 과거

13)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102쪽.

14) 위의 책, 85쪽.

를 호출하는 것도 공업화에 대응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공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 문인이 경험한 상실감은 향수에 가까운 장소 정체성을 담아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잡지의 권두언을 중심으로 공업화와 도시화를 바라보는 울산 문단의 관점을 살피고 시 작품의 형상화 양상을 알아보겠다.

## 2. 권두언에 나타난 공업화 도시화에 대한 비판과 순수지향

권두언은 문인협회와 편집진이 설정한 지역 상황에 관한 문학적 과제를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울산문학』의 권두언과 시론, 평론 등 문학 담론 텍스트를 중심으로 1980년대 울산 문단이 공업화와 도시화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는지를 가늠하고자 한다.

1969년 4월 문인협회 울산지부에서 발간한 『울산문학』 창간호에서 초대 문협울산지부장 김태근은 권두사에서 “몹시 조심스런 마음으로 또 한번 冊을 엮는 작업을 시작해”본다면서 “그것은 전철을 밟는 어리석음이 되지않기 위한 소극성이었다고 자인합니다.”라고 쓴다.<sup>15)</sup>

解放直後 蔚山文友會에서 「太和江」이라는 雜誌를 二輯까지 낸 奇蹟이 있고, 六, 二五 다음 해에 「白楊」이라는 文藝誌를 白楊文化社에서 一輯을 낸 痕迹도 있기는 합니지만, 蔚山文學의 母體가 되기에는 너무나 그 自体가 微弱하고 短命했습니다. / 우리 蔚山에는 아직 文壇이 없고, 舉論할만한 文學이 없습니다. / 人口 二萬의 蔚山이 二十萬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蔚山文化의 成長度는 反比例되고 있는 現像입니다. / 오늘의 蔚山에 文壇과 文學이 없었다는 羞恥를 오늘보다도 來日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文壇이 形成되고 文學이 成長되어야 합니다.<sup>16)</sup>

15) 『蔚山文學』 창간호,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69, 5쪽.

김태근은 자신이 소속된 문우회에서 잡지를 발간했던 기억을 되돌아 보면서, 문인협회 울산지부 기관지의 발간 역시 그와 같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태근은 “우리 울산에는 아직 문단이 없고, 거론할만한 문학이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을 제시한다.<sup>17)</sup> 울산에서도 동인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김태근의 언급은 문학 활동 자체의 부재를 지적한 것이기보다는 동인 활동의 중심점이 될 지역 문단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문학 활동의 중심점이 될 문단이 부재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한 『울산 문학』은 시간이 지나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나타낸다. 1970년에 간행한 제2집에서 함홍근은 “몇 년 전만 하여도 울산은 시골의 어느 소 도시와 조금도 다를바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몇 년이 지난 지금 (...)”

16) 위의 글, 같은 쪽.

17) 이는 『馬山文學』의 창간호 발간사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이다. 초대 ‘문인협회 마산지부’ 지부장을 지낸 시조 시인 김교한은 「이 풍토에 던진 의욕」이라는 제목으로 창간호 발간사를 작성하면서 “新文學 六〇 돌을 맞이하여 이제 마산 문협 會誌를 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한다. “일찌기 이 고장에서는 훌륭한 문단 선배가 배출되었다. 우리는 이 선배들이 닦아 놓은 풍토를 디디고 비로소 스물 몇 포기의 꽃나무로 선을 보인다.”라면서 “우리는 祖國을 사랑하고 鄉土를 사랑하기에 자기가 서 있는 위치를 자각하고, 순수한 문학적인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더욱 성실하고도 진취적인 創作活動을 꾸준히 밀어나감으로써 뒤떨어지려는 지방 문단을 開拓함과 아울러 韓國文壇史에 의욕적인 보탬을 더하고자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라는 선언을 내놓고 있다(金教漢, 「이 風土에 던진 意慾」, 『馬山文學』 창간호, 마산문인협회, 1968, 10쪽). 물론 『울산문학』의 형성과 대응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인접 지역 문인 단체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한국문인협회 부산지부는 1962년 4월 20일 경남 공보관에서 개최된 창립 결성 대회를 통해 발족하였는데, 마산에 한국문인협회 마산지부가 설립되었던 1960년 9월 12일보다 2년 가까이 늦었고,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가 설립된 1966년 3월 16일보다 4년이 이르다. 같은 시기에 각 협회 설립 초기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는 각 지역 문단의 특성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고는 울산의 지방 문학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부산 문인협회와 마산문인협회의 비교 작업은 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인구 이만의 도시가 이십만으로, 이렇게 사람이 늘고 집이 늘고 공장이 늘어서서 급격히 비대해지는 울산의 모습”을 언급한다.<sup>18)</sup> 그러나 공업화로 인한 도시의 비대화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회문화적인 집적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듯하다.<sup>19)</sup> 이에 함홍근은 외형적 성장과 달리 문화의 성장은 그에 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속은 병들고 걸만 비대해 가는 병세를 처방 수술하기 위하여 예술은 번식하고 문학이 성장 하도록 지성의 물을 주어야 할 것”이라며 『울산문학』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sup>20)</sup> 함홍근의 글에는 급속도로 진행된 울산의 공업화가 지역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전제한다. 이에 함홍근은 문학으로서 울산의 공업화에 따른 병폐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의식을 거듭 상기하고 있다.

사실 공업화에 대항하여 문화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바람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문학』은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생각과 느낌”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독려하고 있었다.<sup>21)</sup> 그러나 이후 『울산문학』은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휴간에 들어가고 이후 조홍제는 ‘속간사’에서 울산의 ‘과거’를 긍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울산은 갑자기 비대해진 공업도시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불과 10년만에 산과 들에 수십개의 공장이 들어서고, 새길이 나고,

18) 『蔚山文學』 제2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0, 5쪽.

19) 이광일에 따르면, 1965년부터 1985년 사이의 집적도는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고되었고, 1975년 이후에는 중화학공업화정책으로 인한 전략적 공업지역(마산·창원·울산·구미 등)을 중심으로 경제적 집적도가 제고되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이들 공업지역의 사회적 집적도는 청주·전주·김천·안동·원주·강릉 등의 전통적인 도시에 비해서 낮았다는 점을 지적한다(이광일, 「민주화 전후 지역 정치와 사회경제적 독점구조의 재구성」, 조연현·김동춘·오유석 엮음,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한울아카데미, 2009, 258쪽).

20) 앞의 책, 같은 쪽.

21) 『蔚山文學』 제3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3, 6-7쪽.

큰 다리가 놓아지고, 시가에는 고층건물이 즐비하여 인구도 열 곱이나 너머 늘어 났읍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갑작스런 생활의 향상은 시민들의 경제생활을 급속도로 윤택하게는 했지만 시민들의 정신생활은 되려 소외되고 침체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별로 아쉬운 것이 없는 양. 물질주의로 치닫는 사고 방식이 이 고장 고유의 소박하고 의리있고 미래적인 시민성을 매정하고 타산적인 현실주의로 물들이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입니다.<sup>22)</sup>

그는 울산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사라져가는 장소적 특성이 울산이 지켜야 할 정신적 가치(문화)임을 역설하고 있다. 이해타산적인 물질주의와 구분되는 울산의 정체성이 ‘소박하고 의리있고 미래적인 시민성’이라면, 울산 문인은 문학 활동을 방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품 창작과 발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23)</sup>

속간 후 정기간행에 돌입한 『울산문학』은 12대(1981), 13대(1982), 14대(1983), 15대(1984), 19대(1989) 지부장을 지냈던 서상연을 중심으로 ‘향토성’과 ‘순수(문학)’의 추구라는 방향성을 견지한다. 이는 앞서 강조되었던 애향심과 예술인의 사명감과도 연결된다. 『울산문학』 6집과 7집의 발간사에서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황혼의 문수산이 태화강에 잠기고 조개섬 쪽으로 우네가 덮히면 도칠산이 삼산들에 울고, 그러면 홍수가 진다던 울산. / 지금도 문수산은 의연하고 태화강은 유유하지만 선진공업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7대 도시

22) 『蔚山文學』 제4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9, 8-9쪽.

23) 위의 글, 9쪽. 그는 “문화는 물질면보다 정신면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오히려 정신문화가 물질문화에 억눌려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가 우리 문화의 현실이 중앙(서울) 중심으로 치닫는 탓도 있겠지만 지방나름대로의 탓도 없지는 않는 것입니다.”라면서 “『울산문학』이 향토문단의 기수로서 이 고장의 정신문화 운동에 앞장서기를 다짐하고 창간된 지 불과 7년 만에 3집을 내어 놓고 휴간했던 것”이라고 쓴다.

울산은 이미 과거 속의 울산은 아니다. // 삭막한 시멘트 바닥을 딛고 보는 푸른 하늘 흰 구름의 이야기에 마음을 주고 있을 때, 문득 유년 시절의 아릿한 추억이 가슴을 적시는 이유를 우리는 안다. / 울타리에 줄기를 걸치고 핀 호박꽃, 그 깊숙하고 환한 꽃 앞에서 꿀을 따내듯 순수를 길러내는 시인의 표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 내가 나의 밖으로 나가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지성인을 존경하지만 굴절된 현실에 익숙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비판하며 혐오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 그래서 낙후된 문학 풍토를 안타까와 하는 뜻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홍수를 알리는 도칠산의 울음을 여기 울산 문학의 그릇에 담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4)</sup>

아침 햇빛을 받고 조용히 흐르는 태화강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젖게하고, 끝없이 난 독길의 정서는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게하는 울산의 애기가 된다. 문수산 그림자가 강심에 떠내려가는 황혼이면 바쁜 하루들이 생활 끝으로 밀려나고 푸른 달빛이 강물에 비치면 시인의 언어는 옷깃을 여민다. 생활과 문학 현실은 언제나 매정하게 시인의 얼굴을 외면하지만 바람부는 가슴으로도 시어를 다듬는다.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사람이 그리운 삭막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구태여 공장 굴뚝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팽창한 도시의 허상 때문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에 미루어 외면하고자 하는건 더더욱 아니다. 앞강 뒷강으로 흐르던 태화강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고, 흰모래와 은어가 뛰놀던 가슴저린 순수가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는 시인 작가가 여기 울산 문학에 그 뜻을 모아 내일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다.<sup>25)</sup>

서상연이 주목하는 것은 울산의 ‘과거’이다. 자연의 흐름과 일치한 상태로 삶을 이어가던 울산이 “선진공업국으로 치닫는 우리나라 7대 도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시인으로서 그는 객관적인 시선(“내가 나의 밖으로 나가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지성인을 존경하지만,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 변모한 울

24) 『蔚山文學』 제6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1, 9쪽.

25) 『蔚山文學』 제7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2, 10쪽.

산의 모습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혐오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고 쓴다. 이는 공업화라는 물질적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문인으로서의 자신을 향한 자부심의 표현이다.

이와 같은 진술에서 서상연은 울산의 현실이 굴절되어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것은 세상에 지켜야 할 본연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순수’를 향한다. 그런데 이러한 ‘순수’는 위에서 언급한 ‘객관적인 시선’을 통한 분석적 비판이나 ‘경멸하고 비판하며 혐오하는 자부심’의 표현과도 다른 것이다. 서상연은 당시 공업화로 변해가는 울산을 바라보면서 “공장 굴뚝”, “급팽창한 도시의 허상” 탓을 하지 않을뿐더러,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외면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현실을 초월해 있는 예술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태화강의 기억”, “가슴저린 순수”가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는 시인과 작가가 『울산문학』에 모여서 울산(문학·문화)의 ‘내일’을 구상한다고 쓴다. 이는 시대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본질로서 ‘순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잊혀진 순수의 재건을 통한 굴절된 현실의 극복이야말로 내일을 위한 토대임을 설정하고 있다.

에드워드 켈프에 따르면 장소는 인간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통합되며, 여기에서 의도성은 모든 의식이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가리킨다.<sup>26)</sup> 서상연이 울산의 변화 속에서 기억과 순수를 호출하는 것은 울산이라는 장소를 바라보려는 구체적인 의도성의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쌍영은 「자기반성과 자생적 문학(I)」에서 울산의 향토적 정체성에 갇힌 상태에서 울산의 지방 문학을 형성하려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6) 에드워드 켈프, 앞의 책, 103쪽.

울산문학이라고 할 때 우선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을 말할 것이다.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은 지방의 특수한 여건 즉 울산인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울산의 향토성을 배경으로 하는 문학 등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개념을 내세울 때 이러한 문학은 지역성을 띤 협소한 것이 될 것이다. 문학은 항상 <열려진 상태>로 있어야 한다. 앞에서 말한대로 <지역적·인적>인 조건을 띤 문학이 아니라 울산 지방의 문학에서 표현하고 느끼는 삶의 양식들이 동시대에서 모두가 공동적으로 느끼고 공감하게 되는 문학이어야 한다.<sup>27)</sup>

문쌍영은 울산 문학이 ‘울산인’이라는 조건, ‘향토성’이라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이라는 시선을 편협한 시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진정한 문학’이란 언제나 “열려진 상태”여야 하므로 어느 지역의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980년대 당시 울산은 자본화되어 가는 한국 사회의 흐름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본격적인 공업화는 울산이라는 도시 공간을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밝힌 바, “인간들이 차츰 왜소화되어 가는 경향, 물질적으로 척도되는 인간성,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도는 소외층, 우리들 눈 앞에 파괴되어 가는 자연,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는 현상들, 개인성을 박탈당한 조직사회”와 같은 문제점이다.<sup>28)</sup>

그는 “소수에 의한 항구적 문학 독점을 방지하는 것으로 지방 문학을 키워 나가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는 “편협한 지방성을 띤 문학성이 아니라 개별문학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개별 문학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sup>29)</sup> 그러나 자생적 지방 문학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지역적·인적인 조건을 띤 문학’에서 벗어나 ‘열려진 상태’를 추구하는 일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기존의 조건 혹은 정체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면서도 결국 자신만의 특수성

27) 文雙英, 『自己反省과 自生的 文學(I)-지방 문학을 위한 모색』, 앞의 책, 95쪽.

28) 위의 글, 같은 쪽.

29) 위의 글, 93-94쪽.

을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울산’이라는 장소의 정체성에 울산 문학이 새로운 의식과 경험을 마련해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병철은 본질을 추구하는 행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을 향한 희망이 아니라고 말한다. 본질은 과거를 향해 있으며, 존재할 만한 것을 가리키고 따라서 닫힌 상태라고 이야기한다.<sup>30)</sup> 이에 비추어 볼 때, 당시 문쌍영의 주장은 울산이라는 장소가 지닌 본질, 울산 문인이라는 정체성의 본질을 규정하고 그것에만 갇힐 때 지방 문학의 특수성을 넘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문제를 공유하는 문학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지방 문학(울산문학)이 문인 개인의 역량에 의지해서 자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더욱이 문쌍영이 제기한 ‘열려진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반성, 혹은 ‘열려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기반성이라는 자생적 지방 문학의 실체는 이후 비평의 자리가 사라지면서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sup>31)</sup> 다만 『울산문학』 내부에서 지방 문학의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상연은 “우리 자신도 잘 아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동인적인 색채나 어떤 문학적 형성을 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울산문학』이 특정한 목적의식을 지니지 않는다고 진술한다.<sup>32)</sup> 문쌍영이 말한 ‘열려진 상태’는 이러한 목적의식의 부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울산이라는 특수성에 갇히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학으로까지 나아가야 함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30) 한병철, 최지수 옮김, 『불안사회』, 다산초당, 2024, 114-127쪽 참고.

31) 『울산문학』에 ‘평론’으로 실린 작품인 문쌍영, 「靑馬初期詩에 나타난 二重構造-意志와 愛憐의 面에서」(제6집)와 송희복, 「리얼리즘의 思考-自生的 美學定立을 위한 문제제기」(제8집), 홍홍구, 「민요의 詩化 운동과 申庚林의 민요시」(제13집)는 논문의 성격을 지닌다. 이는 현재 논의하고 있는 지방 문학에 관한 논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어서, 사실상 『울산문학』에서 지방 문학에 관한 고민과 성찰의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본다.

32) 『蔚山文學』 제8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3, 11쪽.

또한 서상연은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대체 무엇이 우리를 해마다 그런 호된 열병을 앓도록 몰아 붙이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는 소박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 이곳 울산,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울산문학』은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쓴다.<sup>33)</sup> 표현 자체에서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조건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울산 태생’ 혹은 ‘울산의 전통’과 같은 장소 정체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하면서 일견 문쌍영이 제시한 자생적 지방문학의 조건으로서 ‘열려진 상태’에 가까워진 듯도 보인다.<sup>34)</sup> 그러나 울산에서 살고 있다는 조건 자체가 울산에서 문학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울산이라는 지역성에 간히는 것과 같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다.

울산이라는 장소에 애착을 갖는 일과 예술적 동력을 동일시하는 서상연은 『울산문학』 9집 발간사에서는 돌연 국가의 미래에 부합하는 목적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국가가 부여한 울산의 정체성에 동기화되는 듯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선진조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도식화된 의식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치는 것이다.

공업도시 울산은 많은 공장, 기업체들이, 또한 많은 상공인들이 있어

33) 위의 책, 같은 쪽.

34) 『蔚山文學史』에는 “조그마한 읍 지역인 울산에서 해방과 6·25의 어려움 속에서도 울산 문학을 붙들고 뛰었던 김태근 선생님이나, 고향에서 교단과 문단을 지키며 제자들을 길러 내신 박상지, 이상숙, 조홍제 선생님들의 땀과 정성이 울산에 문학의 씨를 뿌렸다면, 젊은 나이에 울산문협이나 예총 울산지부 창립에 마구 뛰어다니던 최중두 형의 정열이 이를 싹 틔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제2집에는 옛날부터 울산에서 문학을 하던 사람들 외에 (...)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고향이 아니라 타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라는 회고를 볼 수 있다(양명학, 『초창기 울산문협』, 『蔚山文學史』, 42-43쪽).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겠지만, 울산 문협에도 울산 태생의 문인과 외부에서 영입된 문인들이 공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의 문학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본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늘 뒤안길을 헤매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진조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화합과 단합된 힘을, 통일조국의 내일을 기하려면 도식화된 우리의 의식구조도 바뀌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식이 뚜렷한 모든 지성인의 합성이고 뜻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바람이기도 하겠습니까.<sup>35)</sup>

그러나 그는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서 ‘도식화된 우리의 의식구조’의 정체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것이 ‘뚜렷한 역사의식’과 연결된 것이라면 국가를 향한 비판, 민주화를 향한 열망과도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나마 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의 언어가 여기에 있고 자아를 확인하는 길의 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이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sup>36)</sup>라는 서상연의 진술에서는 그것이 문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이 물질적인 부분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인의 각성을 통해 선진조국의 문화예술이 산업의 발전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힘쓰자는 의미로 읽힌다. 그것은 문학을 향한 열정으로 창작활동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토대가 형성될 수 있고 나아가 문화적 역량도 잇따를 수 있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 문제와 시 창작을 구분하여 문학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이 이어진다.

시인이나 작가는 모름지기 자아성찰을 통한 현실의 안일함을 극복해서, 울산에도 새롭고 아름다운 문학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에는 오늘도 화려한 카페나 술집은 자꾸 생기지만, 문화를 살찌우는, 삶의 숨통을 터 주는 문학공간은 잘 서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디 세상일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는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

35) 『蔚山文學』 제9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4, 8-9쪽.

36) 위의 글, 8쪽.

복하면서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울산문학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때 이곳에도 언젠가는 찬란한 삶과 문학의 꽃이 무더기 무더기로 꽃 피어 나리라.<sup>37)</sup>

김성춘은 12집에서 자아성찰로 ‘현실의 안일함’을 극복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성춘이 말하는 ‘현실의 안일함’은 앞서 서상연이 언급한 ‘도식화된 우리의 의식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읽힌다. 먹고사는 생계의 문제에만 함몰된 현실 속에서 공업화로 인한 지역 발전을 바라는 낙관적 태도를 버리고, 진실한 삶의 가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현수에 따르면 한국 근대문학의 역사는 미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이기도 하다. 그는 창작과 현실 참여를 철저히 구분하든 미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정치적 요소를 강조하든 미적 자율성이라는 패러다임에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를 창작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정치성의 획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미적 자율성을 거부함으로써만 현실참여나 정치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쓴다.<sup>38)</sup>

이는 『울산문학』 내부에서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비판하면서 문학과 문화 발전을 향한 열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과정에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1980년대의 『울산문학』에서는 ‘순수’, ‘삶의 본질’을 향한 지향을 보임으로써 급변하는 현실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미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울산문학』은 이른바 순수문학이라는 미적 자율성의 범위에서 공업화로 인해 변모하는 장소 정체성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창작 양상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울산문학』에 수록된 시 작품 가운데 울산의 장소를 형상화한 작품을 살펴보면서 그 양상과 의미를 가늠하고자 한다.

37) 『蔚山文學』 제12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7, 12-13쪽.

38) 박현수, 『서정성과 정치적 상상력』, 울력, 2014, 92-94쪽.

### 3. 시 작품에서 구현되는 장소 정체성의 양상과 의미

이 장에서는 『울산문학』에 수록된 시 작품 중에서 장생포, 태화강, 공단 지역, 이주민 마을 등의 공간적 배경을 다룬 작품을 살펴본다. 이러한 작품에서는 시인들의 기억, 비판, 그리고 탈정치화된 감정 구조가 다층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른바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울산문학』에서는 창간호에서부터 이미 울산의 공업화에 관련한 시인의 정서가 녹아난 작품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최종두의 「공업도시와 새」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은 이후 『울산문학』에 나타난 공업도시 울산의 장소 정체성과 그에 관련한 정서의 토대를 살펴볼 수 있다.

肥料工場이 선 자리에 살던 황새도 / 精油工場이 선 자리에 날던 비둘기도 / 모두 모두 새집을 찾아 옮겨갔는 / 데 그자리에 가면 밤낮으로 꼭 그와 / 같은 새소리가 들린다. / 煙氣를 뿜는 굴뚝 높이만큼이나 / 아픈 故郷의 變質. // 내 視線넘으로 山허리에 걸린 구름이 / 옮겨가며 짓는 형상을 무슨 所望처럼 / 품안에 간직 하꿍은 그 정성을 아직 /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모른다. // 언제나 겨울은 사람도 새들도 / 웅크리고 산다미는 / 겨울마냥 삭막해가는 들판을 나서면 / 어느새 거기 살던 새가 등우리를 버리고 / 즐거운듯 날아갈 채비에 바쁘 / 다. // 어디론가 훨 훨 즐거운 날개를 펴고 / 移住할 새여. // 그러나 한참 조잘대는 네 음성을 / 가만히 귀 기울이면 / 아, 어인일로 물결처럼 人情이 / 찢겨가는 소리가 들린 / 다.

최종두, 「工業都市와 새」 전문<sup>39)</sup>

최종두는 태화강 주변에 서식하던 황새와 비둘기들이 공단이 들어서며 살 곳을 잃는 모습을 통해 공업화된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해야 했던 울산의 ‘제자리 실향민’을 다루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

39) 『蔚山文學』 창간호,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69, 11쪽.

이, 울산 공업센터가 지정되면서 제대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공단 설립이 예정된 지역민의 이주가 시작되었고 1960년대 후반에는 석유화학단지를 유치하면서 신시가지 개발과 구시가지 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1970년대 접어들어서는 태화강 남쪽과 북쪽의 개발 격차가 누적되어 도시 공간의 차등화가 고착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sup>40)</sup>

「공업도시와 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울산의 일반시민과 시인 자신의 감수성을 대비시킴으로써 예술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이다. 높이 치솟는 공장 굴뚝의 연기만큼이나 “아픈 고향의 변질.”을 느끼고 있지만, “우리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모른다.”라고 말한다. 변화하는 고향의 모습에 무관심한 마을 사람들과 ‘새들의 이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인이 구분되고 있다.

다음으로 울산이 지닌 기존의 장소 정체성이 상실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점이다. “어느새 거기 살던 새가 등우리를 버리고 즐거운 듯 날아갈 채비에 바쁘다”라는 구절에서는 공단이 들어서는 지역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하는 이주민의 기대와 희망이 보이지만, “물결처럼 인정이 씻겨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마지막 구절에서 그러한 모습이 버려진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슬픔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울산문학 창간호에 수록된 최중두의 시는 이른바 ‘고향’으로서 울산의 정체성의 ‘변질’과 그것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79년 이후 비로소 정기간행에 돌입한 『울산문학』에서도 최중두의 시에서 그려낸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중해의 「거리에서」는 옥교동 시가지에서 그러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매일 취한다. // 옥교동 네거리나 시외 버스  
주차장 썸에서 / 거리를 밀러가는 인파를 바라본다. / 그들은 하나같이

40) 울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95-101쪽.

나의 눈치를 살피며 / 어디론가 모의를 하러 / 떼지어 몰려간다. / 어떤  
 자들은 제법 마법의 지팡이를 / 휘두르며 여섯발로 달아난다. // 짐짓  
 속는체 해둔다. // 은밀한 도시의 통로를 / 나혼자 따돌리며 그들은 어  
 디로 가는것일까. // 거리의 한 끝에서 / 목마른 나무들은 자꾸만 쓰러  
 지고 // 나의 육신도 어둠에 잡겨서 / 하강하지 않은 깃발처럼 / 원밤을  
 펼적이다.

박종해, 「거리에서」 전문<sup>41)</sup>

「거리에서」의 화자는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매일 술에 취한다고 말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리에 나선 그는 ‘옥교동 네거리나 시외 버스 주차장 쪽에서’ 자신만 따돌려지는 경험을 한다. 1935년부터 1992년까지 중구 학성동에 울산역이 있었으므로 울산 중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변화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42)</sup> 1980년대 울산의 도심이었던 옥교동을 지나는 사람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일상에 적응하며 적당히 유흥을 즐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술에 취한 시인의 눈에는 그들이 자신만 따돌리고 어딘가로 작당 모의를 하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언론과 문학·문화계를 향한 권력의 감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문인으로서 당연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최일성의 회고에서 볼 수 있듯이, 1980년대 당시 울산문인협회 문인들도 암울한 시대 상황에 술이라도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다.<sup>43)</sup> 박종해에게 당시 울산 중구는 시대적 고민이 상실된 공간처럼 보인다. 술에 취해 깃발처럼 나부끼는 시인의 모습은 설령 “하강하지 않은

41) 『蔚山文學』 제6집, 61-62쪽.

42) 「‘울산역’ 삼산동 시대 끝.. ‘태화강역’으로」, 연합뉴스, 2010.10.29. <https://www.yonhapnews.co.kr/view/AKR20101029100000057> (검색일: 2024.12.14.)

43) 최일성, 「울산탐방-암울하던 시대를 술로 달래던 문인들...옥교동·6」, 『울산여성뉴스』, 2005.12.14. <https://www.uwnews.co.kr/2631> (검색일: 2024.11.20). 최일성 시인은 1980년대 당시 울산 문인협회 소속 문인들이 자주 술잔을 기울이며 시대를 고민하였다는 이야기를 남긴 바 있다. 여기에서 시인 ‘박○○’ 씨의 일화가 소개되는데, 박종해 시인의 작품으로 볼 때 동일 인물로 짐작된다.

것발”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더라도 추상적인 진술에 그치고 만다.

늦은 밤 돌아오는 길 따라 / 몸을 움직인다 / 성남동을 지나 리어카의  
거리 / 어제 저녁에 스민 순대국 내음 / 아직까지 스며 어둠 사이로 기  
어다니고 / 가스불 몇개 무엇을 찾고 있는 듯 / 호루라기 소리. // 옥교  
동 야시장 돌아 나오면 / 낮은 집 지붕 위에 홀리고 간 달빛 몇개 / 놀  
란 듯 바스락거리며 / TV안테나 숲으로 숨는다.

표삼재, 「TV 안테나 숲에 걸린 달」<sup>44)</sup>

이 시의 배경은 울산 원도심인 중구 성남동과 옥교동이다. 시인이 지  
나가는 장소에는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 늦은 귀갓길에 허기를  
채우고 한 잔 술로 하루를 마감하던 이들의 흔적이 묻어난다.

시인이 묘사하는 풍경은 어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리어카의 거리”라는 표현에서 상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호루라  
기 소리’를 내면서 가스 불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는 상황은 ‘단속’과  
도 닮아있다. 시의 흐름으로 볼 때 시인이 마주한 ‘달’은 호루라기 소리  
에 놀라 숨는 것처럼 보인다. 달빛이 호루라기 소리에 숨는 이유는 머리  
카락 길이나 옷차림 같은 개인의 자유가 단속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  
의 달빛이 도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는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이  
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달을 보며 빌었던 소중한 꿈들을 가스  
불을 켜고 호루라기를 불며 시장 구석구석을 탐색하는 이들에게 빼앗기  
지 않기 위해서 달은 서민의 낮은 집 지붕 뒤로 숨는 것이다. 그것은 공  
업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울산의 도시화와 기록하지 않았던 시민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공업화와 도시화라는 표면적인 성장 이면에 가려진 시민  
의 서글픔은 다른 시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지하도에 절망이란 게 없다 / 순식간에 바닥나는 올림픽 복권 / 쇼우

44) 『蔚山文學』 제7집, 78쪽.

윈도우에 투영된 진열품 / 엑조틱한 장애자의 삶 / 운명 감정사 / 순수한 영혼들이 교차되어 지난다. // 지하도는 우리의 숨결이며 / 서민들의 강이며 山 냄새 / 우리속에 흐르는 순수한 영혼이다. / 여기에는 절대자도 없다 / 다만 인생에서 / 불공평한 美가 있는 / 한 커트의 삽화이다.  
최재석, 「지하도 텃상」<sup>45)</sup>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선사시대 울산은 바닷물이 들어찬 공간이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면서 형성된 육지는 습지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서 지하철을 매설하기에는 지대가 단단하지 않다. 그나마 대피시설을 겸할 수 있는 지하도가 갖추어져 있는데, 최재석은 많은 사람의 삶이 교차하는 지하도는 ‘절망’과 ‘절대자’가 없는 다만, ‘불공평한 미’가 있는 공간으로 그려냈다.<sup>46)</sup>

여기에서 ‘순수한 영혼’이 중요하다. 최재석은 이 시어를 두 번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올림픽 복권’, ‘쇼우 윈도우 진열품’, ‘엑조틱한 장애자의 삶’, ‘운명 감정사’와 함께 교차하는 존재로서 언급되지만 뒤에서는 지하도의 속성으로 언급된다. ‘순수한 영혼’은 서민들의 삶과 공존하고 있는 존재이면서 지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서민의 삶이 흐르는 지하도라는 공간의 속성이기도 하다. 통행의 편리함을 위해 지하에 만들어낸 길이지만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존재들이 지하도에 숨겨지기도 한다. 소외된 존재들의 공간으로 여겨지는 도시의 ‘지하’ 공간을 시인은 울산 서민의 ‘숨결’이자 서민의 ‘순수한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공업화와 함께 진행되었던 도시화의 병폐를 간접적으로 고발할 수도

45) 『蔚山文學』 제8집, 31쪽.

46) 울산에는 삼호동, 우정동, 성남동에 지하도가 남아 있으며, “우정지하보도는 지난 1978년 태화루 사거리 강북로에 설치된 후 지하상가와 보행로의 기능을 해왔으며 지난 1991년 태화교가 왕복 8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총 4개의 출입 중 하나가 폐쇄돼 지금은 강북로 복단에 동·서측 출입구 2개와 남측 출입구 1개가 운영되고 있다.”(울산제일일보, 2024.1.17.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628> (검색일: 2024.12.14.)). 그마저도 이용자가 적고, 지하도 상가 경기가 침체하자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있고 나아가 ‘불공평’과 연결된 ‘아름다움’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똑같을 수는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모습을 ‘불공평한 미’가 담긴 삽화로 규정하는 것은 역설적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에 나타난 비극적인 모습을 관망하는 태도로 보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재석은 이후 「서민의 겨울」이라는 작품에서도 도시에서의 삶에 회환을 느끼며 “때로는 세태의 껍질을 / 때로는 나의 껍질을 / 때로는 도시인의 껍질을 벗기위해 / 역새풀처럼 세워진 진리 찾아 / 거리를 뛰쳐 빈 가슴을 쓸고 쓸어도” 슬픔을 극복할 수 없었다고 쓴다.<sup>47)</sup> 공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절망과 슬픔은 과거의 장소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들이 버린 겨울 몇 조각이 / 浦口에 떠 있다 / 여자들은 / 머리에  
운나는 동백기름을 바르고 / 유조선의 긴 그림자에 실려 온 / 이국의 여  
름을 행구어 낸다. / 아픔의 깊이마다 / 출렁이는 바다 / 때때로 여자들  
은 / 돌아온 바다를 안아 보지만 / 그들의 싱싱한 속살은 잡히지 않는다.  
/ 누군가 동백꽃을 가슴에 달고 / 바위섬에 머리를 부딪고 있다.

최일성, 「개운포」<sup>48)</sup>

개운포는 ‘처용’에 관한 설화가 깃든 곳으로 공단에 둘러싸여 있지만 비교적 물빛이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한다.<sup>49)</sup> 개운포는 석유화학 공단이 들어서면서 망향의 슬픔을 간직한 장소들을 끼고 있다. 여천, 매암, 부곡, 황성, 용연, 용잠 등에 살던 사람들이 삼호, 태화, 다운 지구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는데,<sup>50)</sup> 1996년까지도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sup>51)</sup> 이와 같은 이주의 역사를 간직한 개운포는

47) 『蔚山文學』 제11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6, 37쪽.

48) 『蔚山文學』 제7집, 53쪽.

49) 고은희, 『고은희의 발길 따라 걷는 울산포구기행』, 수필세계사, 2015, 158쪽.

50) 소래섭·김정수·정용호, 『시와 함께 만나는 울산의 깊은 풍경』,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3, 98쪽.

51) 「울산 ‘환경오염지구 이주사업’ 수년째 지연」, 『매일경제』, 1996.11.21. <https://www.mk.co.kr/news/all/1721112> (검색일: 2024.12.17.)

떠나간 이들의 슬픔과 그리움이 녹아 있는 장소이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민의 아픔이 남아 있다.

최일성의 시에서 개운포는 ‘동백’을 중심으로 형상화된다. 개운포에 있는 작은 섬 ‘목도’는 동백 군락이 이루어져 ‘동백섬’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일성은 개운포에 떠 있는 동백을 ‘우리들이 버린 겨울 몇 조각’으로 부른다. 추운 겨울에 붉게 피는 동백꽃이 굳고 강인한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동백꽃이 바다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은 사랑하던 대상을 향한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든 꺾였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동백기름’과 ‘유조선’이라는 두 시어의 대립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생활에 두루 사용되던 ‘동백기름’과 산업화 시대의 삶을 떠받치는 석유를 싣고 오는 ‘유조선’은 두 시대의 경계를 의미하고 울산이 지닌 장소 정체성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들은 화해 불가능해 보이는데, 동백기름으로 머리에 윤을 낸 여자들이 개운포로 돌아온 유조선에 묻어온 이국의 여름을 행귀 내고, 돌아온 바다를 안아 보려고 하더라도 결코 속살은 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단이 들어서면서 어촌이던 개운포는 외지인들이 오가는 공간으로 변했을 뿐이다. 그 외지인들은 유조선으로 더 낮은 외적 요소들을 불러온다. 개운포는 그곳에 살던 원주민의 숨결이 남아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변해버린 것이다. 국가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능만이 존재하는, 생존을 위한 목적만이 존재하는 삭막한 풍경으로 변하고 말았다. 기존 삶의 모습을 상실한 개운포에서 누군가는 가슴에 붉은 동백꽃을 달고 머리를 부딪고 있다.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앞에서 드러내는 고통의 표현은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잃어버린 장소 정체성을 향한 기억은 최일성의 「태화강」 연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일성은 공업 도시화로 인한 태화강의 오염이나 파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태화강·II」에서 변화하는 도시에서 경험하는 고통을 표현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 태화강의 수심(水

深) 위로 / 이고장 고운 맘씨가 /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 어지러  
위 짐은 / 어려서 뼈를 키운 / 그 강물이 / 나를 이제 잊은 탓일까”라고  
쓴 바 있다.<sup>52)</sup> 태화강은 사라져버린 과거의 기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울산이 공업도시로 선택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에는 ‘태화강’으로  
조성된 비옥한 토지도 한 몫을 차지했다.<sup>53)</sup> 그러나 울산의 토지에 공단  
이 들어서고 확장해 나가면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진다. 특히 태화강  
은 상수도 사용량 증가와 분뇨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게 된다.<sup>54)</sup>

——정월 대보름—— / 불로 푹푹 뭉쳐진 / 幼年을 받치던 / 달이  
걸렸다 / 어머니의 손바닥에 / 우리의 命을 빌던 / 바람 소리가 울리고  
있다. // 다리(橋)를 밟으면 오래 산다고 / 절뚝거리며 나오던 / 명숙이 /  
흰 고무신 한 켤레가 / 달을 몰고 가고 있다 / 불로 푹푹 뭉쳐진 / 우리  
의 야망이 / 비켜 선 길에서.

최일성, 「太和江·5」<sup>55)</sup>

「태화강·5」에서는 “불로 푹푹 뭉쳐진 유년”과 “불로 푹푹 뭉쳐진 우  
리의 야망”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1연에서 밤하늘에 걸  
린 달은 유년 시절의 추억으로 화자를 이끈다. 가난한 시절 어린 자녀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손바닥을 비비며 기도하던 어머니의 목소  
리와 소아마비를 앓았을 명숙이가 절뚝거리며 다리를 건너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린다.

1연에서 나타난 “불로 푹푹 뭉쳐진 유년”과 2연에서의 “불로 푹푹 뭉  
쳐진 우리의 야망”은 닮은 듯 다른 것처럼 보인다. 1연의 “불로 푹푹 뭉  
쳐진 유년”은 정월 대보름의 민속인 ‘취불놀이’와 ‘달집태우기’와 연관되

52) 『蔚山文學』 제3집, 18-19쪽.

53) 『蔚山廣域市史-산업경제』,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48쪽.

54) 위의 책, 133쪽.

55) 『蔚山文學』 제8집, 19-20쪽.

는 듯하다. 그러나 2연에서 “불로 뿔뿔 뭉쳐진 우리의 야망”은 전통 민속에 담긴 소망이라기보다 공장이 들어선 현재의 태화강에서 갖는 욕망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한 욕망은 어린 시절 명숙이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에서 비껴 서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정체성에서 떨어진 공업화된 울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태화강에서 바라볼 때 울산 남구에 들어선 석유화학 공단의 불꽃과 연기는 국가 성장의 욕망 혹은 공업화의 야망이 들끓는 곳으로 보였을 터이다.<sup>56)</sup> 그러한 야망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야망까지 보태어져 활활 타오른다. “불로 뿔뿔 뭉쳐진 우리의 야망”은 명숙이 걸어가는 길을 막지 않고 옆으로 비껴선다. 불타는 야망이 비껴선 길에서 명숙은 흰 고무신 한 켤레를 신고 달빛을 물고 걸어간다. 명숙의 모습은 순수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공업화로 인해 더럽혀진 태화강의 고통을 드러내는

56) 울산광역시에서 소개하는 울산 12경에는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포함되어 있다. “울산대교의 개통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와 동구 간 이동하는 데 약 40분 걸리던 것에서 20분 수준으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울산대교 동쪽 진입로에 전망대를 설치해 울산대교와 울산의 3대 산업인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산업단지 및 울산 7대 명산을 조망할 수 있어서 울산광역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라고 소개한다.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울산 12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라면서 “도시일몰과 산업불빛이 어우러져 보석처럼 빛나는 황홀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울산대교 전망대’, 울산관광 누리집, <https://tour.ulsan.go.kr/kor/unit/attrctn/view.ulsan?mId=001002005000000000&unitId=122> (검색일: 2024.12.14.)). 그에 앞서 2002년에는 시정소식을 통해 울산 12경 선정 소식을 전했는데, “이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지정된 울산 12경은 가나다 순으로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으로 정한 것은 각각의 풍광이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고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기에 단지 나열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나다 순] 1. 가지산 사계, 2. 간절곶 일출, 3. 강동·주전해안 자갈밭, 4. 대왕암 송림, 5. 대운산 내원암계곡 6.무룡산에서 본 울산공단야경 7. 문수체육공원, 8. 반구대, 9. 신불산 역새 평원, 10. 작괘천, 11.태화강 선바위와 십리대밭, 12. 파래소 폭포”를 정한다고 하였다(‘울산12경 선정’, 울산광역시 누리집, 2002. 12.11. [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3&mId=001004001001000000&dataId=16819](https://www.ulsan.go.kr/u/rep/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03&mId=001004001001000000&dataId=16819) (검색일: 2024.12.14.)) 공단의 야경이 한 도시를 대표하는 경치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존재로 나타난다.

고향을 잃은 일손들이 / 하나 둘 눈물을 담고 / 흙결으로 돌아오던 날  
/ 황토빛으로 버림받던 땅땀기엔 / 하얀 갈꽃만이 나부끼었다. / 아버지  
의 아버지 / 그 아버지의 아버지적부터 / 꽃목숨 가꾸던 지평 위로 / 신  
앙의 달덩이를 떠 올리며 / 살던 福地를 버리고 / 풋보리 목을 뽑아 /  
가벼운 듯 하늘가로 / 파란 피리소리를 날리며 / 회색빛 도회로 빠져나  
간 그들은 / 그때 어째서 / 뼈꾸기가 억척으로 울고 / 지나던 흰구름이  
/ 자꾸만 뒤돌아 보는지를 / 알 수 없었다. / 農夫는 흙에서 태어나 / 흙  
과 함께 살리는 / 쟁 가슴을 후리친 / 얼룩물소의 외침앞에 / 이제나마  
그들은 / 왕국보다 더 넉넉한 / 부풀리는 초원에의 꿈을 부둥켜 안고 /  
번득이는 쟁기날에 / 물빛으로 살아나는 / 빈촌의恨을 넘어뜨리며 / 묵  
묵히 천평의 밭을 간다. 박영식, 「밭을 일구며」<sup>57)</sup>

공업화로 인한 공간 변화는 문인에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장소 정체성의 상실로 경험된다. 1962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1970년대 들어서면서 울산지역에서는 “배나무 앞에 까만 반점들이 생겨나면서 성장률과 생산량 감소를 불러일으켰고, 삼산 평야의 벼가 시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며 수확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sup>58)</sup> 이는 울산이라는 장소 정체성이 이미 농업을 중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업화로 기울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울산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공단이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민은 저마다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구성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고향을 떠나는 슬픔과 연결된다.<sup>59)</sup>

「밭을 일구며」에서는 도회지로 떠났던 사람들이 “흙결으로 돌아오던 날”을 형상화한다. 이 시에서 ‘농부’는 농사를 짓는 직업이나 특정 계층

57) 『蔚山文學』 제10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5, 41-42쪽.

58) 『蔚山廣域市史-사회·문화』, 130쪽.

59) 김시덕, 「개발에 쫓겨난 ‘제자리 실향민’들... 흔적없는 고향터엔 쓸쓸한 망향비만이」, 『한국일보』, 2022.4.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110430001967> (검색일: 2024.11.27.)

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울산의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이 농촌이라는 점에서 ‘농부’는 공업화로 인해 기존의 장소 정체성을 상실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보인다. 나아가 ‘농부’는 ‘울산’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통적인 장소 정체성을 수궁하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울산문학』에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농촌 이탈과 도시 집중에 관한 문제의식과 그에 관한 시인 나름의 답을 담고 있다.

“회색빛 도회로 빠져나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그들’이 나아갈 삶의 방향성이 과거를 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복지(福地)’를 버리고 떠날 때 그들은 뺨꾸기의 울음소리와 뒤돌아보는 흰 구름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나타난다. 뺨꾸기와 흰 구름은 도회지를 향한 발걸음을 말린 것으로 이해되고, “농부는 흙에서 태어나 흙과 함께 살라는” 얼룩물소의 울음소리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고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적부터” 이어오던 농부의 삶을 수궁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자연의 순환적 시간에 따라 살아가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공업화에 맞선 이와 같은 삶의 방향은 ‘빈촌의 한’을 안겨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천평의 땅을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말하고 있다. 잃어버린 장소 정체성을 향한 그리움과 그러한 장소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태도는 장생포를 형상화한 작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눈보라로 부서지는 겨울바다가 / 온몸으로 기름방울을 밀어내고 있다  
 / 낮은 집은 포복을 해야 하는 / 바람 많은 장생포에 / 연탄 화물차, 기름배도 몰려오면 / 사람보다는 검정물 문은 살림살이가 많지 / 새들은 공단 굴뚝을 피해 날고 / 작업복 입은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에서 / 날마다 꾸는 고래의 꿈 / 시뻘건 몇 점 살로 남아 피로를 씻어주지만 / 까닭 없는 그리움은 어두워오는 바다위에 떠다니면서 / 동해바다 식욕이며 / 잠자리까지 올라와 내뿜은 물기둥이며 / 그런 것 모우느라 / 겨울내내

울부짖고 있다.

문영, 「장생포에 가서」<sup>60)</sup>

문영의 시에서는 고래가 남긴 ‘시뻘건 몇 점 살’을 먹는 동안 ‘까닭없는 그리움’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고래 고기에는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선 장생포의 살풍경에 대비되는 동해바다를 유명하던 ‘고래의 꿈’이 내재해 있다. 그것은 동해바다 식욕, 잠자리까지 올라와 내뿜은 물기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그리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관한 그리움인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공업화된 울산 그중에서 장생포라는 장소가 잃어버린 어떤 것임을 짐작할 수는 있다. 짐작건대 그것은 ‘고래’, ‘포경산업’에 관련한 장소 정체성인 듯하다.

1986년까지 장생포에서 포경산업이 지속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울산광역시사』에서는 “1985년까지 장생포를 포경기지로 하여 포경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근해포경수산업협동조합 산하에는 12개 업자가 16척의 포경선을 보유하고 연평균 900마리를 포획하였다”고 기록한다.<sup>61)</sup> 그러나 1986년부터 포경업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포경업체에 관한 보상 및 전업(轉業) 대책이 마련되었다. 안성길은 울산의 해양문학에서 고래의 이미지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의 시인들에게 고래는 기다림 혹은 그리움의 부표처럼 그들 가슴한 권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sup>62)</sup>

1988년에 발표된 문영의 시에서도 고래는 그리움의 대상이지만, 그 그리움이 과거를 향한 향수에만 그치지 않는 듯하다. 장생포의 포경산업 금지와 포경산업 종사자의 전업 지원은 고래를 향한 인간의 반성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그 대신 들어선 석유화학공단과 그로 인한 강제 이주는 장생포 주민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것은 고래에게 작살을 던지며 유지하던 폭력이

60) 『울산문학』 제13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8, 28쪽.

61) 『蔚山廣域市史-산업경제』, 143쪽.

62) 안성길, 앞의 글, 185쪽.

공단을 통한 폭력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날마다 꾸는 고래의 꿈’이란 장생포의 ‘과거’를 향한 ‘회상’이면서도 현실을 향한 부정적인 의식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63)</sup>

요컨대 『울산문학』에서는 공업화와 그로 인한 도시화가 불러일으키는 상실의 슬픔과 절망감이 나타나며 그와 같은 부정적인 현실 인식은 과거의 장소를 회상하며 향수를 느끼는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울산문학』의 권두언을 통해 확인한 문인협회 필진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4. 결론

본고는 1980년대 무크 운동의 흐름 속에서 순수문학을 지향하던 『울산문학』이 공업화와 그로 인한 도시화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 양상을 보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울산문학』의 권두언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지향을 파악하고 잡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 장르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나타난 장소 인식과 정서적 반응 양상을 고찰하였다.

『울산문학』은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가 발간한 기관지로 1969년 창간 이후 1980년대까지 지역 문단을 조직화하고 순수문학 중심의 문학 활동을 지속해 왔다. 1980년대 울산지역에서 비평 중심의 무크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울산문학』은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 문학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63) 박승규에 따르면 환경 문제는 단수로 존재하지 않고 복수로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로 ‘환경 문제’는 가진 자의 입장에서 제기되고, ‘우리의 환경 문제’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의 조건이 배제되거나 무시된 채로 설정된다(박승규, 『일상의 지리학』, 책세상, 2009, 46-54쪽). 장생포의 고래잡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는 심각한 환경 문제이고 극복해야 할 문제였지만, 장생포에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활이었을지도 모른다.

협회의 기관지라는 성격상 문학의 현실 인식이나 비판 의식을 확장하는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했으며 창간 초기 일시적으로 실렸던 비평 또한 점차 사라지면서 지방 문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보았다.

『울산문학』에 수록된 시들은 대체로 관념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이 두드러졌으며 공업화와 도시화를 겪는 울산의 장소를 시적으로 형상화한 사례들도 일부 존재했다. 이러한 작품들은 산업화된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회상과 현실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그리움’의 정서에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데서 느껴지는 무력감이 중첩되어 있었으며, 이는 장소 정체성의 상실과 연결된 정서적 풍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본고는 『울산문학』에 수록된 시 작품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다만 본고는 『울산문학』의 초창기에 대한 선행 논의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창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적 흐름을 중심으로 울산 문단의 대응 양상을 향토성과 장소 인식의 층위에서 정리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장르를 포괄한 종합적 분석과 같은 시기 부산 경남지역 문인협회와의 비교 혹은 문단 간 영향 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통해 『울산문학』의 지역성과 특수성을 더욱 입체적으로 조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울산문학』이 지금까지도 발간되고 있는 울산지역의 대표 문예지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지방 문학의 연속성과 장소 감수성의 재구성 과정을 향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마산문화』 1, 도서출판 맷돌, 1982.  
『蔚山廣域市史』,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蔚山文學』 창간호,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69.  
『蔚山文學』 제2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0.  
『蔚山文學』 제3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3.  
『蔚山文學』 제4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79.  
『蔚山文學』 제6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1.  
『蔚山文學』 제7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2.  
『蔚山文學』 제8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3.  
『蔚山文學』 제9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4.  
『蔚山文學』 제10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5.  
『蔚山文學』 제11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6.  
『蔚山文學』 제12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7.  
『울산문학』 제13집, 한국문인협회 울산지부, 1988.  
『蔚山文學史』, 울산광역시 문인협회, 2004.

### 2. 단행본 및 논문

- 고은희, 『울산 포구기행』, 수필세계사, 2015.  
김경연, 「1980년대 지역문학운동의 문화정치학-무크지 『지평』과 『전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89집, 한국문화회, 2021, 479-530쪽.  
김보경, 「1980년대 무크 문학의 편집 내용과 전략-‘확산적 방향의 종합’과 ‘포괄적 방향의 종합」, 『현대문학의 연구』 81, 한국문학연구

학회, 2023, 291-342쪽.

박승규, 『일상의 지리학』, 책세상, 2009.

박종해, 「[문학도 지방화 시대] 울산문학의 현황과 발전의 가능성」, 『문예운동』 110, 문예운동사, 2011, 148-153쪽.

박현수, 『서정성과 정치적 상상력』, 울력, 2014.

소래섭 · 김정수 · 정용호, 『시와 함께 만나는 울산의 깊은 풍경』,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2013.

안성길, 「현대문학: 울산의 해양문학」, 『사립어문연구』 제19집, 사립어문학회, 2009, 175-201쪽.

울산민주화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울산민주화운동사』, 선인, 2023.

임세진, 「80년대 지역무크지와 지역문화 운동의 특성과 의의: 『마산문화』의 지역 정체성 구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61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9, 323-357쪽.

조연현 · 김동춘 · 오유석 엮음, 『한국 민주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동학』, 한울아카데미, 2009.

한병철, 최지수 옮김, 『불안사회』, 다산초당, 2024.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 김현주 · 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 4. 기타

김시덕, 「개발에 쫓겨난 ‘제자리 실향민’들...흔적없는 고향터엔 쓸쓸한 망향비만이」, 『한국일보』, 2022. 4. 2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42110430001967>

이상혁, 「<울산역> 삼산동 시대 끝.. ‘태화강역’으로」, 연합뉴스, 2010. 10. 29. <https://www.yna.co.kr/view/AKR20101029100000057>

최나영, 「창간3주년 특별기획\_사라진 섬」, 『울산저널』, 2015. 8. 13. <https://m.usjournal.kr/news/newsvew.php?ncode=17951341582>

2755

- 최일성, 「울산탐방-암울하던 시대를 술로 달래던 문인들...옥교동·6」, 『울산여성뉴스』, 2005. 12. 14. <https://www.uwnews.co.kr/2631>.
- \_\_\_\_\_, 「울산탐방-태화강 백사장(白沙場)」, 『울산여성신문』, 2006. 3. 31. [https://www.uwnews.co.kr/sub\\_read.html?u\\_ip=203.250.70.9&uid=3537](https://www.uwnews.co.kr/sub_read.html?u_ip=203.250.70.9&uid=3537)

<Abstract>

Literary Responses to Industrialization in  
*Ulsan Literature*  
- Focusing on the Preface and Poetry Works -

Jeong, Yong-ho\*

This paper examines literary responses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Ulsan region, focusing on the preface and poetry included in the Ulsan branch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s journal, *Ulsan Literature*. While literary activities in the Ulsan region were not limited to specific organizations and were diversely carried out through various groups of writers and literary circles, the Ulsan branch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played a key role in institutionalizing and establishing continuity in the Ulsan literary world. While *Ulsan Literature* continued to ponder the formation of a local literary world and culture, it also sought to restore Ulsan's place identity, which was disappearing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 particular, it maintained a line that pursued locality and purity until the 1980s, and in its poetry, it depicted places wher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d occurred and contained the poet's perspective on them. In the poems included in *Ulsan Literature*, the regret for old places that have disappeared due to industrialization is revealed, and in poems depicting urban areas, the harsh reality and alienation of city dwellers are described. However, these descriptions

---

\* University of Ulsan.

focus on expressing regret for lost values rather than directly criticizing reality. In this process, the place identity given by the poet was confirmed to be close to longing and nostalgia that are in line with the essential values of life.

Key Words: Ulsan literature, Ulsa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place identity, past, nostalgia

■ 논문접수 : 2025년 02월 19일

■ 심사완료 : 2025년 04월 15일

■ 게재확정 : 2025년 04월 15일